WWW.KMI.RE.KR

제 222호 · 2013년 9월 17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OREA MARITIME INSTITUT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광동성, 10개 철도망 구축으로 복합운송 확대 기대
2. A.R.T. Logistics사, 유럽-몽골 트럭킹 서비스 확대
3. 아부다비, 러시아 사회기간시설 개발에 50억 USD 투자 예정
4. DHL 익스프레스, 중남미 물류시장 투자확대

물류시장동향

1. Bollore Africa Logistics, 인도 ABG 항만의 컨테이너 운영지분 매입
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라틴아메리카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공지사항

「2013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사업동향

□ 광동성, 10개 철도망 구축으로 복합운송 확대 기대

○ 광동성 철도그룹이 동서부 철도 대개발의 일환으로 광동성위원회와 성정부의 협력 하에 철도 건설 확장공사를 추진키로 함
- 현재까지는 10개의 철도망 구축 공사와 28개의 철도노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공사를 추진

○ 향후 3년 내에 광동성 철도 운영구간은 4,445km로 확장되어 현재보다 45.8% 증가될 예정이며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노선은 현행대비 3.1배 증가한 1,707km로 확장될 전망임
- 고속철도 노선은 광동성과 연결되는 샤선(厦深), 선전푸티엔역(深圳福田站) 및 구이광(贵广), 난광(南广), 마오잔(茂湛) 등 구간에 총 869km 확장 예정
- 일반철도 노선은 간샤오(赣韶)철도, 롱후남측(龙湖南)에서 샨터우(汕头) 구간 및 샤선(厦深)철도 연결노선, 광선노선(广深线) 및 광저우에서 센춘구간 개조공사 등을 통해 총 118km 확장 예정
- 또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으로 관후이(莞惠), 푸짜오(佛肇), 쉬관선(穗莞深)홍메이~션전공항 구간, 광칭(广清) 광저우북측~칭위안 구간 등의 4개 프로젝트를 통해 총 279km 확장 예정

○ 현재까지 광동성과 광동철도그룹은 2개의 수강(疏港)철도 건설을 진행중임
- 2020년까지 광동성에 광동성난샤(广州南沙)수강철도, 샨터우수강철도, 차오저우항(潮州港)지역철도, 지에양(揭阳)수강철도, 마오밍보허항(茂名博贺港)철도 등을 건설하여 철도와 항만 간의 복합운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 광동성 철도망 구축 계획도 >



○ 10개의 철도망과 28개의 철도노선 네트워크 구축으로 광동성 및 인근항만과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형성 및 녹색물류를 실천한다는 계획임

- 수강 철도가 건설되면 항만과 철도를 활용한 Sea&Rail 복합운송이 활성화되어 광동성 대형항만의 화물유치는 물론 지역내 물류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전망
- 특히 광동성 정부는 선전항과 광저우 및 주하이항만간 화물수송능력이 향상되어 수출입 및 환적화물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자료 : 남방일보 bo.nfdaily.cn, 2013.9.2.

박여진 연구원 (☎ 02-2105-2967, yjp06@kmi.re.kr)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ho@kmi.re.kr)

□ A.R.T. Logistics사, 유럽-몽골 트럭킹 서비스 확대

○ A.R.T Logistics사[1]가 몽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 광산업체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난 5월 유럽과 몽골을 연결하는 LTL(less-than-truckload) 트럭킹 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기존 월 2회 서비스를 월 3회로 확대하였음

- A.R.T Logistics사는 유럽에서 중국까지는 해상을 통해, 그리고 중국에서 몽골까지는 트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 검토 후, 유럽에서 몽골 광산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LTL 서비스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림
- 몽골은 석탄, 금, 구리 등 자원부국으로, 광산산업이 전체 국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몽골은 중국의 가장 큰 원료탄 공급국으로 2012년 상반기 전체 물량의 34%를 차지

○ 한편, A.R.T Logistics사는 2008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에 운영허브를 건설한바 있음

- 25개의 유럽 국가들은 기존 도로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는 빌뉴스의 창고를 이용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연결
- 빌뉴스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숙련된 트럭 운전자 팀이 매우 거친 지형의 7,000㎞ 거리를 11일에서 13일 안에 트럭으로 주행
- 또한 숙련된 물류 담당자들은 빌뉴스 허브를 기반으로 하여 분류, 라벨링, 포장, 무게측정 등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 이외에도 EU, 러시아 그리고 몽골 세관의 요구에 따라 입출고 화물에 대한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서비스를 제공



출처 : www.art-businessgroup.com

○ A.R.T Logistics사는 장기적으로 몽골에서 북미시장, 궁극적으로는 호주와 동남아시아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임

자료 : cargonewsasia.com, 2013.9.5.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었으며, 중앙아시아, CIS 국가, 몽골 및 아시아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전문 물류회사로 광산 장비뿐만 아니라 광산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부다비, 러시아 사회기간시설 개발에 50억 USD 투자 예정

○ 아랍 에미리트 연방의 아부다비 시는 러시아의 유료도로, 항만, 공항 등 주요 사회기간시설 개발에 국가가 보증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50억 USD를 투자할 계획임
- 각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자는 내년부터 시작되어 향후 5년에서 7년 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부다비의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왕세자 간의 회담 중 관련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
- 아랍 에미리트 연방 재무부가 Russian Direct Invenstment Fund(RDIF)와 함께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합작투자회사에 공동투자 예정
- RDIF는 모든 관련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나 투자금액은 아직 미정
- 향후 RDIF 외 다른 국부펀드들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

○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시절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가 자국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음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신규도로 및 철도 건설을 위한 130억 투자계획을 발표
- 또한 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러시아는 자국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투자가 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현금흐름 사업이라고 적극 홍보

○ 이처럼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특히 중동 산유국들을 가장 주요한 투자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상기 투자계획도 RDIF가 러시아 산업분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20억 USD의 자금을 아부다비를 기반으로 하는 무바달라 개발(Mubadala Development)과 함께 투자키로 한 후 한달만에 발표
- 그러나 과거 몇 년 동안 이뤄진 여러 투자약속에도 불구하고 중동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실적은 현재까지는 미미

자료 : www.cargonewsasia.com, 2013.9.11.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DHL 익스프레스, 중남미 물류시장 투자확대

○ 지속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는 중남미지역이 DHL 익스프레스의 핵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대중남미 교역액은 2008년 수출 1,370억 달러, 수입 1,60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수출 1,832억 달러, 수입 1,718달러로 증가하였고, 2013년 7월까지 수출 1,061억 달러, 수입 945억 달러를 달성
- DHL 익스프레스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서 자사의 미국행 물량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14.4%가 증가했으며 전체 교역량도 늘어나 핵심시장으로 성장
-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중남미지역은 미국과 같은 남북지역 국가간 교역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시아가 속한 동서 지역 간 교역도 크게 증가했으며, 중남미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입이 늘어나면서 교역량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 DHL 익스프레스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중남미지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중임
- DHL 익스프레스는 중남미와 아시아국가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역내 물류사업 확장도 기대
- DHL 익스프레스는 최근 몇 달 동안 멕시코시티 물류센터에 2,500만 달러, 칠레 산티아고 신규 배송센터에 730만 달러, 콜롬비아 물류센터에 170만 달러가 넘는 투자를 진행하는 등 중남미 지역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
- 이와 같은 물류시설투자 확대는 DHL 익스프레스의 지역전략계획에 의한 중남미지역 신규 물류수요 대비와 중남미지역 물류시장선도를 위한 네트워크 확충의 일환

○ 중남미 물류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인접국의 물류시설 및 서비스 정비도 실시중임
- DHL 익스프레스는 각 지역 물류 수요에 부응하고자 소화물 처리용량의 확대 및 항공화물 수송을 위한 항공기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료효율이 높은 운송수단 도입도 추진
- 이와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물류센터에서 멕시코 제조업 물류센터까지 직행하는 항공편을 추가했으며 중남미 지역 및 카리브해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물류서비스도 제공
- 작년 하반기에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40,000ft² 규모의 신규 물류센터를 건립,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물류시장 확대에 대비

자료 : www.miamiherald.com, 2013.9.8.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Bolloré Africa Logistics, 인도 ABG 항만의 컨테이너 운영지분 매입

○ France's Bolloré의 자회사인 Bolloré Africa Logistics가 인도의 ABG 항만의 컨테이너 운영 지분 49%를 매입
- 동 지분은 ABG Infralogistics가 운영하고 있는 Tuticorin항만의 Dakshin Bharat Gateway 터미널 운영 지분으로, 총 750만 달러 규모
- 상기 터미널은 2012년에 일반화물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터미널로 전환한 것으로 30년의 운영권을 소유

○ Bolloré Africa Logistics는 아프리카 항만의 Shipping agents 역할도 하면서 아프리카 물류시장 점유를 점차적으로 확대 중

자료 : www.hellenicsshippingnews.com, 2013.9.13.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라틴아메리카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가 라틴아메리카 인프라 개발 투자를 더 확대키로 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및 칠레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국-라틴아메리카 간의 더 밀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에 합의
- 특히 라틴아메리카 인프라 개발에 중국의 투자를 더 확대키로 결정

○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그동안 석유산업, 광업 및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왔지만 최근 발전소, 고속철도, 항만 및 도로 시설 등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가 금년 8월에 발표한 글로벌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중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투자는 650억에 육박
- 또한, 중국 수출입은행은 금년도 라틴아메리카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및 라틴아메리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자금원조 펀드를 설립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3.9.12.

고안나 연구원 (☎ 02-2105-2925, ako@kmi.re.kr)

「2013년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분석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2.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4. 지원 내용

○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국고보조금 + 자부담 matching)

조사비용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비율 (최대)	70%	60%	50%	1억원

< 지원금액 예시 >
· 타당성 조사비용이 5천만원 :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9천만원 : 최대 5천4백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1억6천만원 : 최대 8천만원 지원
· 타당성 조사비용이 2억2천만원 : 최대 1억원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실제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13. 9. 5(목) 09:00 ~ 10. 4(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첨부 1>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첨부 2>의 양식, 전자파일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첨부 3>의 양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신청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제조·건설·자원개발 등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또는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3년 10월20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센터(KMI) 문의
- 해외투자사업 정보 및 해외투자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심기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로 문의

↓

사업신청서 작성
- 해외투자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

사업추진계획 협의
- 기업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와 사전 지원사항 협의

↓

예비조사 실시
- 사업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지 경제무역 현황 및 물동량, O/D, 시설 등 해운물류현황 조사
- 현지 조사(Fact Finding) 실시

↓ 공동추진

설명회 개최
- 기업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초기 관심기업 우선지원

↓

협의체 구성
- 관심기업들의 논의를 통한 협의체(컨소시엄) 구성

↓ 단독추진

사업추진계획 확정
- 사업추진방향, 전략, 정부 지원사항 등 협의

↓

사업타당성 조사(FS)
- 물동량 예측, 투자비, 자금조달 계획 등

↓

사업추진 및 투자
- 투자재원마련 등 사업추진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